

“2 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기업으로 응비하는 雙龍精油”

成河榮
〈雙龍精油 업무 2 과장〉

부존량의 유한성 등으로 공급의 불안정성이 尙存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67년 국내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主油從炭으로 전환된 이래 석유의 安定確保는 국가적 관심사였으며, 1차 석유위기가 후에는 산유국과의 직거래를 통한 석유의 안정확보가 국가적 명제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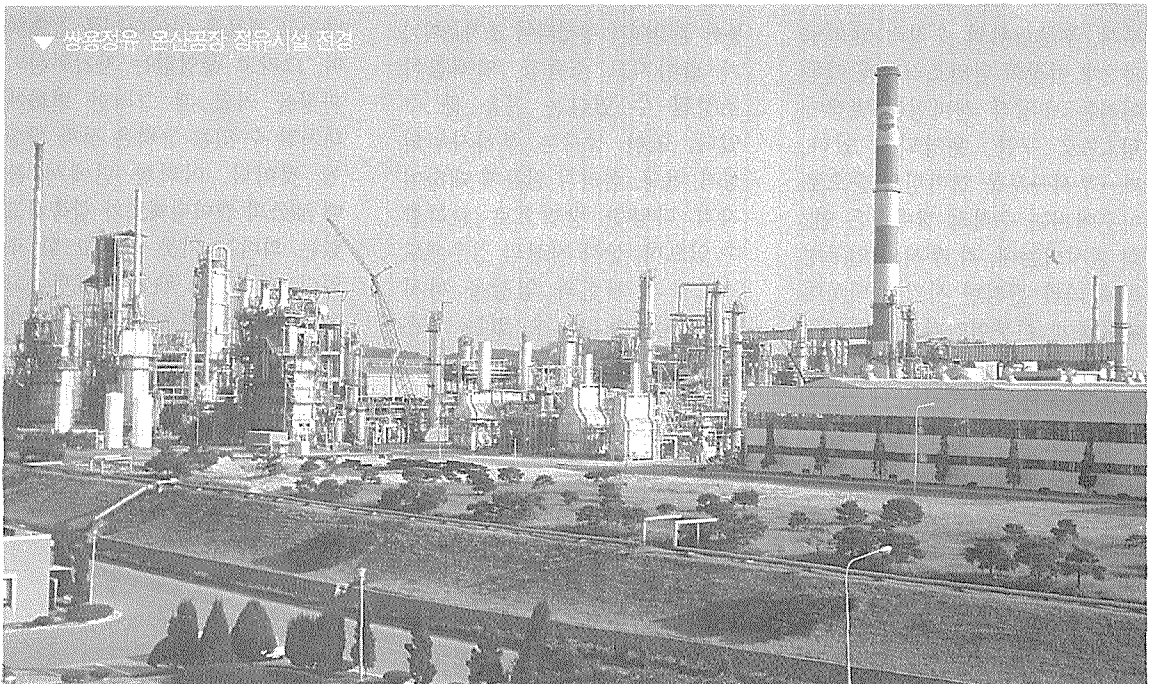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태동한 雙龍精油가 6월 28일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였는 바, 그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미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 雙龍精油의 설립과 의의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가후 날로 격화되는 자원내셔널리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석유의 안정확보

석유는 모든 산업의 기초 에너지원으로서 국민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으며,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수많은 재화의 원료로 쓰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석유는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부존지역의 편재성과



는 국가적인 대명제로 등장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도약을 위해 개발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동력인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확보여부에 따라 경제개발의 명암이 뒤바뀌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산유국과의 직거래를 통한 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해 산유국과의 외교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쌍용양회는 정부의 산유국 원유의 교정책에 부응하고 새롭게 전개된 석유 무기화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유국과 합작에 의한 정유공장건설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쌍용양회는 2년여의 어려운 교섭 끝에 이란의 국영석유회사(National Iranian Oil Company)와 50대 50의 합작정유공장건설계약에 합의, '76년 1월 6일 쌍용정유의 전신인 한·이석유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NIOC와 직거래방식에 의한 국내최초의 민간베이스 원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수원사업이었던 석유의 메이저의존 탈피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에 앞서 '75년 12월에는 상공부로부터 하루 6만배럴의 原油정제 및 3,320배럴의 유회기유제조를 위한 석유정제업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쌍용정유의 온산공장건설 사업은 산유국과의 원유직거래 및 공급선의 다변화라는 정부시책으로 이어져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점단의 수소첨가개질공정을 채택하여 수정처럼 맑은 고급유회기유를 생산하고 있는 유회기유시설



회사설립 이후 雙龍精油는 공장 입지의 선정 및 부지매입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76년 8월 Foster Wheeler를 건설주계약자로 선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을 치른지 3년6개월만인 '80년 5월에는 정유공장의 상업가동이 개시되었고, '81년 1월에는 유회기유공장이 상업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쌍용정유의 유회정유공장건설이라는 大役事는 성공리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대역사에는 항상 우여곡절이 있듯이 쌍용정유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공장건설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던 '79년초 이란에서 회교혁명

의 기운이 대세화함으로써 합작회사의 운명에 커다란 걸림돌이 등장하였다. 예상했던대로 이란회교혁명정부는 해외투자자본철수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쌍용양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80년 8월 이란측 소유주식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총 자본금 165억원의 순수민족자본에 의한 쌍용정유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출범한 雙龍精油가 국내정유산업에서 지니는 意義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유국과의 원유직거래 방식도입으로 국내소요원유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둘째, 국내최초로 순수민족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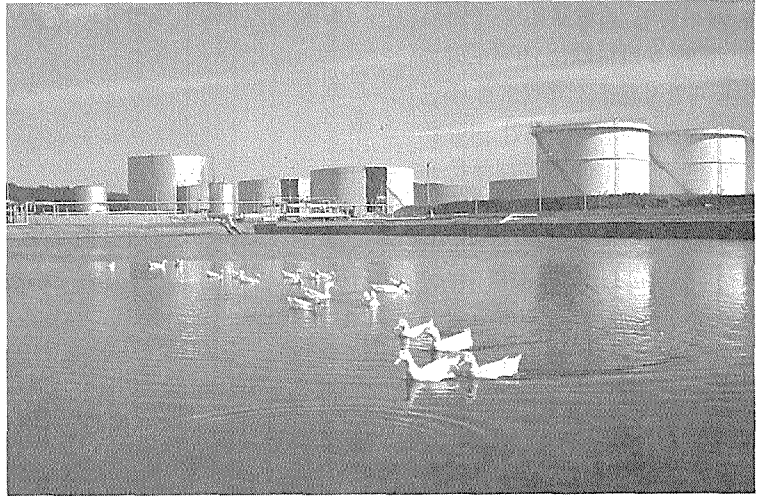
에 의한 정유회사로 등장함으로써 과거 메이저의 殘影에 따른 정유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여과 작용을 하게되었다.

셋째, 국내최초로 고급유회기유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유회기유 자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유회유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끝으로 가동이후 해외임가공사업개척을 통해 국내정유산업의 신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침체에 따른 해외수요창출 및 국내수급불균형완충에 기여해왔다.

2. 雙龍精油의 성장과정

雙龍精油가 가동하기 직전에 발생한 제2차 석유위기는 '79년부터 3년간 지속된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연결돼 국내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제반생산활동의 둔화, 탈석유정책추진에 따른 연료대체, 석유류소비절약추진 등으로 '80년에서 '82년까지 3년간 처음으로 石油수요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정유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정유업계는 경제능력과잉현상이 발생하여 기존업체들이 쌍용정유의 시장침투를 방어하고 침체된 수요에 대응하는 판매확대전략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雙龍精油는 역경과 시련속에 판로를 개척해야 했으며, 또한 후발정유사의 경제성보완을 목표로 건설된 유회기유 시설도 메이저의 덤핑공세와 수요침체로 판매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설상가상으로 대미달러환율의 폭등과 국제금리가 불안정해



▲ 6대째를 이어오는 하안오리가족의 안식처로 자연속의 호수를 연상케하는 폐수처리장

지면서 가동초기의 막대한 고정비 부담과 금융비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경영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그러나 雙龍精油는 이러한 악조건을 안정성장을 위한 체질강화의 계기로 삼아 다음과 같은 自救努力을 통해 경영개선을 추구해나갔다. 외부적으로는 산유국과의 유기적 관계유지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해외시장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인 원유賃加工事業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가동률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공장운전의 최적화를 이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과 수율을 극대화시키고 체계적인 에너지절감운동을 추진하는 등 내부관리체제의 합리화에 주력하면서 착실하게 판매망을 확충해 나갔다.

또한 유회기유 국제시장의 공급과잉이 물고 온 메이저의 국내덤핑 판매로 유회기유시설가동의 한계상황속에서도 국내유회기유의

자급체제구축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축적을 통한 품질개선에 주력해왔다.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雙龍精油는 '85년부터 흑자를 시현하여 안정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87년 5월에는 가동 7년만에 企業公開를 단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최근 쌍용정유는 「석유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라는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휘발유, 등·경유, 유회기유, 유회유 등의 품질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84년부터 고급유회유제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해오면서 축적한 자체 유회유배합기술을 바탕으로 Dragon이라는 고유제품을 개발, '89년 하반기부터 유회유내수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엔진오일의 기술자립화를 선도하고 있다.

3. 雙龍精油의 사업현황

雙龍精油는 쌍용그룹의 기업특성이기도 한 기간산업 본연의 자세에서 국가적인 중요성과 사명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관을 토대로 경영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雙龍精油가 지향하는 기업관은 국민과 사원 모두가 보편타당하다고 믿는 가치를 공동체의식으로 추구하면서 석유에너지의 안정공급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체로서의 雙龍精油는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터전으로서 모두가 쾌적한 업무분위기속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각자의 성취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는 한편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신

의 일에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맡은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활기넘치는 직장으로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관에 입각하여 쌍용정유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1) 정유사업

6만B/D규모(공칭)의 원유정제 시설을 보유하고 연간 약 3천만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국제석유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산시설의 경우 국내최초로 촉매상에 수소를 첨가하여 탈황하는 中質油 순첨탈황공정을 설치하여 유황함량을 %단위에서 ppm단위로 낮춘 저공해 등·경유를 생산하는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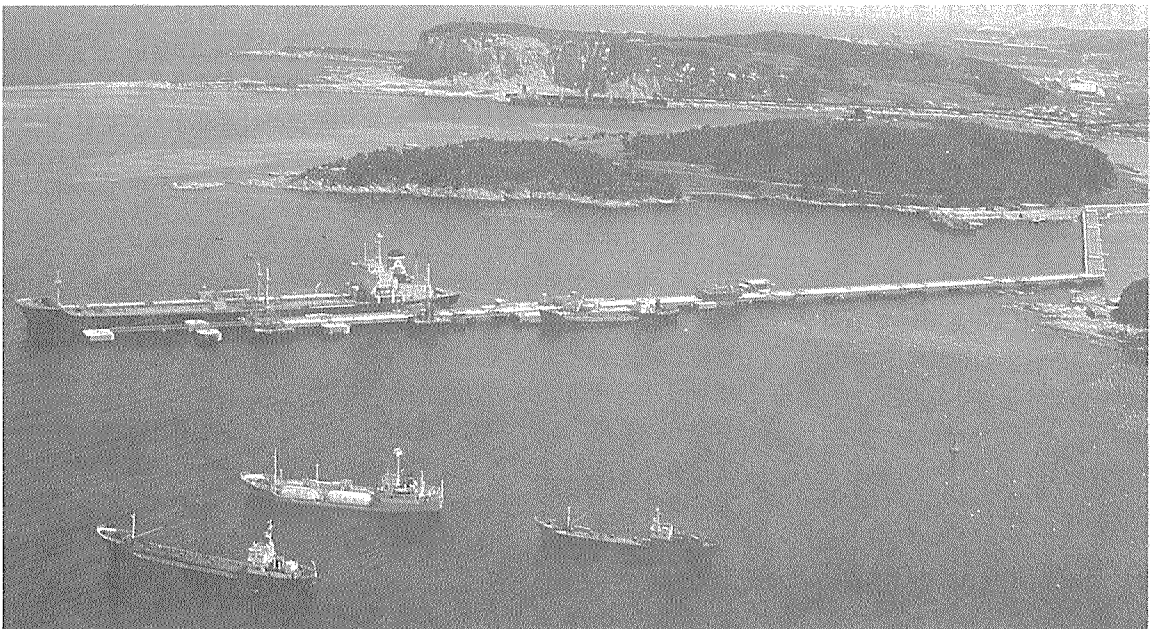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서 환경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국내石油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91년 완공을 목표로 10만B/D의 원유정제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국내 석유류수요구조의 변화와 환경보전에 대비코자 3만B/D의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설치사업을 '92년말 가동목표하에 추진하고 있다.

(2) 윤활유사업

윤활유사업은 윤활기유 제조부문과 윤활유 배합부문으로 구분된다. '81년 수소첨가개질공정에 의한 3,320B/D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을 건설하여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80년까지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윤활기유의 자급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

▼ 3만톤급 유조선 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온산공장 해상출하시설



및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89년 하반기에 실시된 수입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공급 및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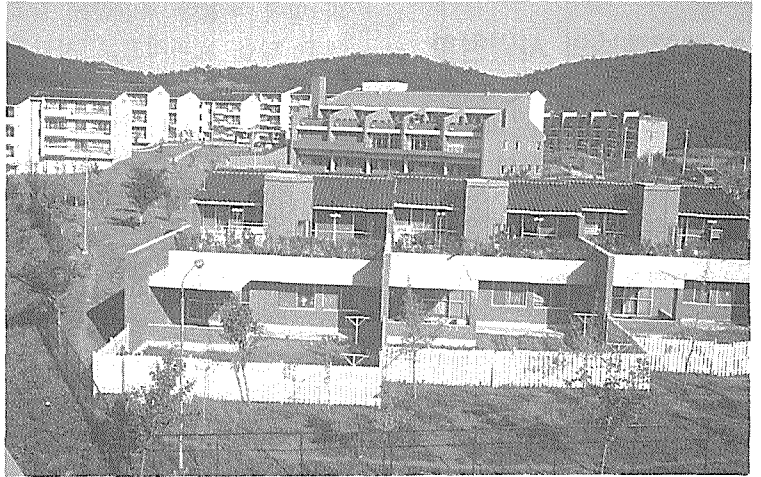
한편, '89년 하반기부터 1,000B/D의 윤활유 배합시설을 갖추고 자체기술개발에 의한 고유상표로 윤활유 내수시장에 진출하여 로얄티절감을 통한 소비자보호는 물론 윤활기술의 토착화를 선도하고 있다. 나아가 윤활유사업의 종합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첨가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기타사업

가동후 짧은 기간내에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단계적인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크게 석유화학사업과 유전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유화학사업은 국내석유화학 기초유분의 수급상황을 고려, BTX부문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연산 48만톤규모의 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금년말부터 상업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BTX관련 계열화 및 중질유 분해시설관련 석유화학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전개발사업은 향후 정유산업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KE-11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에 대한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4. 2000년대의 雙龍精油



▲ 울산시 신정동에 소재한 공장사택

급변하는 경영여건속에 여러가지 제약요인을 안고 있는 국내정유산업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2000년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회사별로 역량에 맞는 신규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정유업계는 대부분 정제사업에만 의존해 왔으나, 석유산업의 성장한계를 감안할 때 기업구조의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雙龍精油는 미래지향적인 「雙龍 100년사 창조」를 기업이념으로 하고, '신뢰·혁신·인화'를 경영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雙龍문화를 바탕으로 국제석유환경변화와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00년대에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기업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90년대의 장단기 전략사업으로 정유부문의 고도화, 윤활부문의 종합화, 석유화

학·정밀화학부문의 진출 및 계열화, 유전개발부문의 단계적 확대, R&D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력의 고도화사업 등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분자신소재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경우 쌍용정유는 2000년대에 우리나라 에너지업계 및 화학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